**Global Education**

**TESOL**

**컴퓨터 교육과**

**김인권, 김한별, 이재호**

**테솔(TESOL)**

<http://www.tesol.org/s_tesol/index.asp>

**http://www.tesolkorea.or.kr/**

**TESOL 이란?**

테솔(TESOL) 자격증은 Teacher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영어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에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영어교육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부 방법을 연수함으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전문 영어교사를 양성해 가는 과정을 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법 How to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테솔 입니다.

**TESOL 자격증**

**TESOL KOREA 테솔 자격과정**은 Asian EFL Journal의 테솔과정으로 해외 자격증 프로그램과 강사 그대로 한국에서 수업을 하고 해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TESOL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Asian EFL Journal의 Certificate가 발급되며 Asian EFL Journal과 연계된 호주의 UNSW, USQ, 영국의 Salford, 미국의 Anaheim 대학등에서 인정됩니다.

2개월(8주) 동안 TESOL 온, 오프교육 전 과정을 출석률 80%이상으로 수강하고 프리젠테이션 심사 및 TEST를 통과하면 Asian EFL Journal의 국제공인 TESOL 수료증 및 국내 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연계된 대학은 호주의 UNSW, 호주의 USQ, 영국의 University of Salfor, 미국의 Anaheim University 입니다  
학점인정 여부는 10% ~ 25%까지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고, 학점인정 대신 수업료 할인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TESOL Korea에서는 온라인(VOD)과 오프라인(OTP프레젠테이션 & 피드백)으로 된 총8주차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만든 테솔 (WMT)**

위의 테솔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생각해보았다. 테솔은 자격증으로서, 그것만으로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는 없다. 그러나 테솔의 과정과 비슷한 것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사시험에 이 자격증을 가지면 추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테솔의 목적**

WMT의 목적은 글로벌 교사 양성에 있으나. TESOL은 영어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WMT는 시간을 12주차로 늘리며 교생실습을 하게끔 한다. 이때 대상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불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교육 과목은 영어에 한정된다. 이로 하여금, 기존의 테솔보다 교육적인 경험을 더욱 늘려 현대 교육에 알맞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만든 테솔의 교육과정**

TESOL Korea에서는 온라인(VOD)과 오프라인(OTP프레젠테이션 & 피드백)으로 된 총8주차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들은 거기에 교생실습을 더한 총 12주차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커리큘럼은 TESOL과 같다.

**테솔에서 찾을 수 있는 글로벌 교육**

내가 WMT를 만들며 생각한 글로벌 교육이란, 교사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인 교육을 국내에서 하는 것 또한 글로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으며 최소 9년간의 영어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영어에 만족하는 이른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물론 영어를 사용하는 일이 살아가며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 글로벌 교육이란, 교수의 세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가르치는 교육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